<春來不似春>

2203.59 -12.84 코스닥지수

754.74 유가(WTI, 달러) 63.50 +0.20

1USD

1187.42 1066.48

1146.58 1029.80 1332.10 181.66

1EUR

1CNY

1280.12 164.36

경기침체·미분양··· 주택경기 '춘래불사춘'

제주, 3월 주택인·허가 321호로 6년 만에 최저 2016년 2288호 14%선… 미분양 해소는 제자리

제주지역 주택경기가 회복은 커녕 더욱 힘든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침체는 물론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얼어붙은 주택시 장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제주지역 주택인허가 실적은 321 호로 지난해 같은기간 629호에 비해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 년 371호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 준이다. 또 올들어 3월까지 1분기 동 안 인허가 실적은 1102호로 1751호 였던 전년에 비해 37.1% 감소했다.

특히 주택인허가 실적은 2288호로 가장 많았던 2016년의 1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분기 실적 역시 1102호는 2013년 952호 이후가장 적 은 물량이며, 3년전인 2016년 4660 호의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착공실적은 552호로 전년 883호의 37.5%이며, 1분기도 1636호 로 2035호였던 전년보다 20% 가까이 감소했다. 최근 몇년새 착공실적이 가장 많았던 2016년 2232호의 1/4 수준에 머물렀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6년 4848호의 34% 정도였다.

준공실적은 639호로 전년 953호에 비해 33% 정도 감소했으며, 3월까지 의 1분기 실적도 2305호로 전년 (3228호) 보다 28.6% 감소했으며, 2017년 5070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 인허가 및 착공실적 등 이 감소한 것은 이유가 있다. 경기침 체 및 인구유입 감소세와 좀처럼 해 소되지 않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3월 한 달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1227호로 2월 1277호에 비해 44호(3.5%) 줄 어들었다. 또 악성미분양물량인 준공 후 미분양도 723호로 집계됐다. 2월 에 비해 6호(0.8%)만 줄어든 셈이 다. 따라서 미분양주택은 2017년 12

월 1271호를 기록한 이후 1년 넘게 1200호 안팎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 지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월 711호로 역대 최고를 기 록한 이후 10월 731호, 11월 736호, 12월 750호를 기록하며 4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어 올 들어서도 1월 703호, 2월 729호 등 여전히 700호가 넘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날 제 3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및 지방 35개 등 총 41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미분양관리지역인 제주 시의 적용기간이 오는 10월31일까지 로 연장됐다.

조상윤기자 tkchoi@ihalla.com

5월 중소기업 경기심리 90.9 기록… 전월보다 ↑

여행 수요가 몰리는 5월을 맞아 제주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심리가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4월15일부터 그달 22일까지 도 내 중소기업 33곳을 대상으로 실시 한 '2019년 5월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에서 5월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보다 18.0 포인트 상승한 90.9를 기록했다고 지 난달 30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의 SBHI는 한달 전 72.9까지 추락했다 가 이번에 간신히 반등했다.

항목별로 보면 제조업의 SBHI는 전월보다 15.2포인트 상승한 94.1, 비제조업은 18.5포인트 오른 87.5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했을 땐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해 5월에는 도내 중소기업의 SBHI 가 96.0을 나타내 올해보다 5.1포인 트 높았다.

SBHI는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 수로 100이상이면 다음달 경기가 좋 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업체가 그렇 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업체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담배소매 거리제한 확대… 편의점 난립 막나

소매점 간 거리 50m→ 100m 편의점 출점 과다 경쟁 방지

제주도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가 100m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전역의 담배 소매인 지정 제한거리를 100m로 하 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 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전부개정규칙'을 마련, 지난달 30일 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은 없는 실정이다. 밝혔다.

개정규칙안은 도내 동지역과 읍면 사무소 소재지 리(里)지역의 담배소 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기존 50m 이 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해, 도내 모든 지역의 담배소매점간 제한거리 를 100m 이상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그동안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 을 받지 않던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도 앞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받도록

제주도내 편의점은 모두 954곳으 로, 편의점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 1305명 보다 훨씬 낮은 723명에 불 과할 정도로 편의점이 과다 출점해 있는 상태다. 편의점 과다 출점은 편 의점간 과다경쟁, 슈퍼마켓·나들가 게 등 주변 영세소매점 경영 악화, 골목상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지만 편의점 출점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

제주도는 이에 편의점 신규 출점 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담배소매점 제한거리를 확대키로 하고, 관련 개 정규칙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담배소매점간 제한 거리 확대로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 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 는 우려에 따라, 기존 담배소매인에 한해서는 개정된 규칙의 시행일로부 터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곤충과 친해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이들이 컬러누에를 직접 만져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1층에서 열린 '누에와 곤충 특별전시회'에서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5월 한달간

제주 8만7101가구 대상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 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에 근로·자녀장 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5월 중 신청을 받아 9월중 지급할 예정이 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페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안내대상 이 지난해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 구 증가했고,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 의 비중이 커졌다. 안내 대상자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는 53% 로 전년 5만4636가구에 비해 59.5%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 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 (국세청 홈텍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 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지난달 26일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소재 시험포장에서 신품종 상추 2품종 을 선발해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평가회를 진행했다. 사진=제주도농업기술원 제공

제주 신품종 상추 선발 "색 진하고 병해충에 강해"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송승운)은 지난달 26일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소재 시험포장에서 농촌진흥청과 각 도농업기술원, 종묘업체 관계자 등 엽채류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상추 지역적응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과 각 도농업기술원에서 공 동으로 육성한 우량 상추 10계통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비품종 5품

종에 대한 지역적응성을 검토해 제 주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흑치마 계통의 '원교11-18호'는 대비품종 '토말린'에 비해 색택 발현 이 좋아 기호도가 우수하고, 병에도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도내 재배 비율이 높은 청치마 계통의 '원교11 -23호'는 대비품종 '청치마'에 비해 색이 진하고 칼슘 결핍증 발생도 적 은 우수품종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회에서 선발된 계통은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심의회를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국립종자원에 품 종보호 출원할 예정이다. 표성준기자

급하게 된다.

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 증가했다.

이다. 제주지역인 경우 8만7101가구

청할 수 있다고 국셍청은 설명했다.

신청할 수 있다.

또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 공하게 된다. 조상윤기자

고산리

계획관리(전) 자연취락지구 731㎡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4억4600만

호텔 25실

해안도로접 전 객실 바다뷰 34억5천

서홍동

유수암리 계획관리(전)

2차선접함 **400㎡** 오수관공사중, 다용도부지 1억7900만

연 동1.5룸

마리나호텔사거리 인근 10층 중 7층 로열층 남향, 위치좋음 1억5200만

토산리(급매)

계획관리(과수원) 4m도로접함, **4056㎡** 건축가능토지 5억1천

와 흘 리

계획관리(전) 전원주택부지 951㎡ 현과수원사용, 건축허가득 3억4500만

별장 대661㎡건165㎡ 남향, 바다경관

5억

보목동

등록번호: 제 50110-2017-002100호 대표공인중개사 : 노진업 위치 : 연북로 606, 3층

공인중개사

064-723-8850

010-4692-0952

부 공 인 중 개 사

10-2800-4595 064-747-5115



등록번호: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완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22 726–4585 010-8660-1263

표선면 가시리 계획관리 35,000㎡(2차선접, 임·과)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 오등동 전·임야 18,000㎡(생산관리지역)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회관리, 임, 2차선접)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접) •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한림읍 옹포리(주거지역) 2,000㎡ 바다접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 복

《김녕해안도로접 2474㎡ 15억원

- 해안동취락지구내 주택용지 788㎡ 5억 | • 노형 6차선 접 자연녹지 2,025㎡ 52억
- 협재금강산콘도인근 신축주택 556/90㎡ 3.95억 수산봉 저수지인근 카페용경관양호 620㎡ 3.1억

•판포 바다경관 굿 자연녹지 3028㎡ 6.4억원

※ 하귀택지개발내 2종주거 319㎡ 4.9억원 아라동기자촌내 1090㎡ 9.24억

• 봉성 시멘트도접 임야 842㎡ 6400만원 • 유수암 팬션 건물488㎡ 대781㎡ 6억원

 유수암 2차선 변 주택착공 토지 519㎡ 2.5억 • 중문서측 일주도로 4차선 접 토지 8,244㎡ 45억 | ※중문고인근 자연독지 638㎡ 3.3억 •연동2층주택 대352㎡ 주택122㎡ 11억

어음 제안로인근 바다전경양호 9659㎡ 11.7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5,050㎡ 9.9억원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서귀포양어장 16,169㎡ 100억원



양복점 제일사 의 약속

모델비례 체형맞춤정장

30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http://www.cheilsa.co.kr 제주시 이도이동 1180-12 TEL: 722-0914 FAX: 722-9098

최고급복지	맞춤정장	1,00만	402
고급	"	60₽	35 E
보통	"	3(5⊉	25巴
최고급복지	맞춤콤비	60년	302
고급	"	40(만	252
최고급복지	맞춤바지	2년만	12巴
고급	"	1/5∰	82
보통	"	#0만	62
와이셔츠	맞춤셔츠	/ 8만	5巴
영업시간: AM 9시~ PM 9시 일요일은 쉽니다.			
NAVER	제일	Ał:	검색

